STAGE 1 - 나에게 있어서 직업 윤리는 무엇인가?

1. 이력서 작성 시 경력 부풀리기

경력을 부풀릴 경우, 면접 당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채용 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경력 부족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접 당시에는 당장의 채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에 경력을 부풀려서 채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채용 이후, 업무 생활에서의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얻은 직장은 본인에게는 경제적으로는 행복하겠지만 직장내 다른 직원과의 업무적 교류와 같은 생활에서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력서 작성 시 경력을 부풀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메리츠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마이너스적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 “채용 면접” 시에 어디까지 진실하여야 하는가?

이력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면접관이 묻는 질문 사항에서 진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감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나라하게 진실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질문 사항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되 이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게 나타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나의 결점을 어디까지 드러내어야 하는가?

이력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면접관이 묻는 질문 사항에 결점이 존재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 사항이나 질문 사항에서 자신의 결점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결점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요구 사항이나 질문 사항에서 묻지 않는 결점까지 말하게 된다면 인사담당자가 이력서나 면접을 진행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4. 조직 내부의 비리: Whistle blowing (내부고발)?

내부 고발 행위 자체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날 회사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시선이나 평가는 좋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오히려 내부 고발 행위를 한 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내부 고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한가? 그 경계는 어디인가?

회사 내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비품들을 남들보다 많이 소비할 경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를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자나 커피를 남들보다 조금 더 섭취하는 경우와 같은 사소한 부분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자와 커피를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그 원칙은 무엇인가? 분별력, 지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과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생각됩니다.

STAGE 2 -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의 소명은 무엇인가?

1. 나의 전공,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또는 실현하는 방법/수단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놀거나 즐기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심적으로 끊임없는 공허함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기업/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러한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나의 진로 결정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진로 결정 기준은 돈과 적성이며 적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느끼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경우,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생활을 이어나가기에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로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픙요롭지 않으면 삶을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중요시 하는 모습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이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또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욕망은 사회적으로 죄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나에게 있어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나의 비전을 실현시키거나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4. "회사"에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것은 동시에 가능한가?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나타내어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인식이 좋게 비춰지게 된다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인식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양쪽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

회사 생활과 신앙 생활이 충돌하게 된다면 회사 생활을 좀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하는 신앙 생활이 참된 기독교인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회사 생활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게 된다면 신앙 생활을 중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족들이 고통받는 동안 계속 신앙 생활을 중시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